신강위구르자치구의 관광 개발과 '중화제국' 만들기

구소영*

〈차 례〉

1. 머리말
2. 개혁기 중국의 개발 전략과 민족문제
  1) 균형발전 이데올로기와 "서부대개발" 정책
  2) 신강에서의 개발 전략의 실천과 격차의 '민족화'
3. 신강위구르자치구의 관광 개발과 실천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비근대적'이며 다수에 상대적인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의 '서부' 지역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과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민족 간 갈등이 더욱 극단적이고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서 논의를 출발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지역개발 전략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을 초래하는 기제를 관광이라고 하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통한 사회 안정과 국가 통합을 위해 제기된 '서부대개발' 전략은 그 목표와 달리 지역의 다수 성원들을 포용하지 못한

* 경북대학교 사학과

정책과 실천으로 인해, 비록 지역에 제한된 경제 발전을 가져왔지만, 오히려 중앙 정부와 관광개발회사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고, 또 그것은 효율을 강조하는 시장 경제 논리 하에서 더 나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대량의 자치구 외부 인원의 유동으로 실천됨으로써 다양한 요소에서 기인하는 갈등이 '민족' 이데올로기 속에 표면화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한편, '타자'의 기호에 맞는 '소수민족 전통 문화'의 재구성은 그것의 '진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근대성'이나 '문명'의 권위를 등에 업은 외부 세계와의 일상적인 접촉은 변방의 소수민족 문화의 중심 문화로의 동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신강위구르자치구의 관광을 통해서 본 자치구의 많은 소수민족 성원들은 현재 이중의 제국의 압박 속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강자치구의 많은 소수민족 성원들은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배치 하에서 사람들의 삶이 더욱 더 자본에 포섭되고 있는 '자본주의 제국'과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고차적인 아이덴티티에 '(소수)민족 아이덴티티'를 종속시킴으로써 '중화민족 대가정'을 만들고, 신강위구르자치구를 역사적인 '중화제국'과 견고하게 연결시키는 현대 중국이 만들고 있는 '중화제국'의 이중의 통제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신강, 소수민족, 서부대개발, 관광, 중화제국

1. 머리말

2014년 3월, 중국 운남성(雲南省) 성도(省都)이자 관광도시인 쿤밍(昆明)의 철도역에 서 29명이 사망하고 140여 명이 다치는 칼부림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신강위구르 독립 세

력의 조직적인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테러범'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였다.[1] 또 2013년 10월에는 수도 베이징(北京)의 천안문 광장에서 위구르인 일가족의 차량 돌진으로 5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당국은 위구르 분리주의 세력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테러사건으로 명명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에서 민족문제로 표면화된 각종 '소요' 사태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민족문제는 중국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아왔으며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민족문제에 대하여는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편견과 고정 관념이 존재한다. 문화혁명(文化革命)이 종결된 이후 정치적 이데올로기 속에 논의되었던 민족문제는 탈정치화의 과정을 거치고, "중화민족다원일체론"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집단 간의 평등과 통합을 담보로 하는 개념 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현재 중국 강역에 살았던 모든 민족과 그 민족이 살았던 영역을 모두 중화민족과 중화민족의 강역이었다는 주장을 한다. 물론 현재 중국 땅에 살았던 민족이 다양한 기원을 가지면서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오래전부터 하나의 일체된 형태를 가지고 발전했다고는 할 수 없다.[2] 즉, 현재의 다민족 국가의 현상을 과거에 투영해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또 중국 민족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종종 중국 사회의 변천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를 특정 민족이나 종교를 강조

---

1) 「"3·01"昆明火車站嚴重暴恐案3名罪犯今執行死刑」新華網 2015년 3월 24일, http://www.yn.xinhuanet.com/newscenter/2015-03/24/c_134093377.htm

2) 안치영, 「중국의 민족 문제: '중화민족', 한족 그리고 '소수민족'」, 『동아시아 브리프』 3(2), 2008, pp. 117-119.

하며 '민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일률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복잡하고 다원적인 사회에서 모든 집단은 횡적으로 서로 다른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차이로 인한 갈등, 저항, 억압도 항상 잠재해 있다. 특히, 본문에서 다루는 신강 지역은 역사적으로 오래 전부터 여러 민족이 공존하면서 민족 간의 갈등과 융합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곳이다. 여기에 최근 중국 정부가 전지구적 시장 경제화의 심화에 따른 경제발전전략으로써 중국 서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이 지역에는 복잡한 요소로 중첩되어 있는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신강의 지역적·민족적·역사적 차이에 기인할 수도 있고, 중국 신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왕후가 지적한 것과 같이[3], 중국 전체 사회 변천 과정 속에서 집단적, 경제적, 문화적 이해관계의 대립과 같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중국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두 '민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균일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태도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중국 정부의 경제발전을 통한 사회 안정과 국가 통합 전략이 오히려 격차를 확대시키고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여 중앙 정부의 신강위구르지역 개발과 그 구체적인 실천 전략인 관광이라고 하는 사회적 실천을 분석함으로써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문은 마이클 헤치터(M. Hechter)의 내부식민지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헤치터는 국가 간 식민지적 상황이 일국적 차원에

3) 왕후이는 티베트문제를 사례로 들며 폭력화나 외부의 분열 세력의 존재를 제외하면 이 문제는 티베트 지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닌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이 경험하고 있는 보편적 위기의 일부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왕후이 지음, 송인재 옮김, 「동양과 서양, 그 사이의 '티베트 문제'」, 『아시아는 세계다』, 글항아리, 2011, p. 234.

서도 재현되는 현상을 내부식민지론으로 이론화했다. 그에 의하면, 일국의 영토 안에서 근대화는 공간적으로 불평등하게 전개되는데, 그것은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자원 분배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의 차이에 따라 발전의 정도는 달라진다. 중심부는 기득권을 바탕으로 정치적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배분의 우위를 유지하거나 더욱 강화시키고, 주변부는 상대적으로 자원배분의 기회와 과실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두 공간의 격차를 확대시키고 심화시킨다고 보았다.[4] 이와 같이, 내부식민지 이론은 균형발전론에 입각해서 고안된 서부지역에 대한 경제 개발전략이 오히려 격차의 확대와 사회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민족문제를 이해하는 데 일정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역경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관광은 어느 특정 지역의 지리적 공간을 풍경이나 문화 등으로 다시 재창출하게 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정서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활동이다. 관광 컨텐츠를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행위 속에는 왕후이[5]나 유장근[6]이 지적한 것과 같은 오리엔탈리즘이나 근대성과 같은 행위 주체의 의지나 다양한 가치 판단이 개입된다. 또한 관광은 사람의 이동을 유인한다. 그것은 여가나 소비를 장려하는 정

4) 임의영, 「'지방생산모형'의 도출을 위한 시론적 연구 - 타자화논리와 내부식민지론의 통합을 중심으로-」, 『지방 행정연구』 제20권, 2006, pp. 140-143.

5) 왕후이는 중국이 서구 오리엔탈리즘의 환영을 비판하면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신비로운 티베트를 여행 시장 개발에 활용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는 모습을 지적하고, 중국 스스로 행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재생산과 그것이 중국에 새롭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사회적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비판하였다. 왕후이 지음, 송인재 옮김, 앞의 책, pp. 149-176.

6) 유장근은 중국 관광산업의 최대 히트작이 된 대샹그리라 지역권의 형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인(漢人)적 오리엔탈리즘의 재현과 중국 당국의 전략 의도를 분석하였다. 유장근, 「현대중국의 샹그리라 만들기와 그 의미」, 『현대중국의 중화제국 만들기』, 푸른역사, 2014, pp. 414-463.

부 정책과도 연관되어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으로 접근이 더욱 용이해지면서 더 나은 경제적 이익을 찾는 지역 외부의 다른 민족 성원의 경제 이민을 촉진시키고 이것은 관광 목적지 사회에 여러 변화를 일으킨다. 게다가,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신강과 같은 변경지역의 관광 개발은 중앙 정부에게 변경지대에 대한 탐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곳으로의 사람의 이동을 통해 자국의 영토를 확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 관광개발에 따른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나 확장은 '문명화' 혹은 '도시화'의 명목 하에 변경지역(주변)의 내지(중심)로의 통합 혹은 동화를 가속화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개발의 일환으로써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변경지대의 소수민족지역 관광 개발과 그 실천은 현대 중국의 '중화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중국 당국의 목표를 이해하는 데 일정 도움을 준다. 이에 아래에서는 신강위구르자치구를 사례로, 시장 경제화의 심화에 따른 중국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과 그것의 지역에서의 실천 과정을 검토하고, 지역개발의 일환으로 성행하고 있는 자치구 관광개발과 실천에 나타나는 여러 동태들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중국의 '중화제국 만들기'와 '민족 소요' 문제를 고찰한다. 이를 위해 현지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광의 실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불가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로 그와 관련해서는 다른 연구자의 조사보고서나 연구 논문에 의거한다.

2. 개혁기 중국의 개발 전략과 민족문제

1) 균형발전 이데올로기와 "서부대개발" 정책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중국공산당은 "공동 부유"의 목표 하에 사

회주의 사회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분배 불평등, 자본주의 부활 등을 비판하며 평균주의를 실행하였다. 하지만 '혁명'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생산력을 심각하게 저해하였고 실제 생산력의 감소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류사오치(劉少奇)와 같은 중국공산당 내 일부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시기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발전된 생산관계와 낙후된 생산력 사이의 모순이라고 주장하며[7] 생산력 향상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그런 조치들은 매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노선 투쟁"이라고 하는 정치적 담론 속에 갇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문화혁명(文化革命)이 종결된 이후 탈정치화의 분위기 속에서 민족문제의 계급문제화도 부정되고, 차이가 있는 집단 간의 평등과 통일을 보장하는 것 같은 개념의 "중화민족다원일체론"[8]이 채택되었다. 이것은 다민족국가인 중국은 오랜 역사 과정 속에서 각 민족이 다른 민족의 문화 전통과의 상호 영향 하에서 발전해온 결과라는 민족 집단 간의 관계를 다원주의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간의 단결·융합'과 국토의 일체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천에 따른 민족 집단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와 피지배 혹은 압박과 피압박과 같은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9] 실제로 현재 중국에서 "중화민족 대가정"이라는 선전이 더욱 체계적으로

---

7)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劉少奇年譜』 下卷, 中央文獻出版社, 1997, p. 375.

8) 1988년 페이샤오통(費孝通)에 의해 제기된 중화민족다원일체구조론은 중국은 중국 내 많은 민족들이 오래 전부터 서로 경쟁하고 융합되어 통일된 다민족국가를 형성해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족을 "중화민족" 응집의 중심으로 파악함으로써 그 외 비한족을 주변화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차적인 아이덴티티로서 "중화민족"을 상정함으로 인해 민족을 피라미드 수직화 하고 있다. 그래서 "중화민족"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 하부 민족의 발전은 제한을 받거나 변화를 강요받는다.

9) 小嶋祐輔, 「中國における差異の政治と民主主義-新講"民族主義"の經驗が示唆するの-」, 『ICCS現代中國學ジャーナル』 2, 2010, p. 230.

실행되면 될수록 민족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화민족다원일체론"에 기초하여 국민 통합과 영토 통합을 도모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의 실현이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포스트 마오시대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鄧小平)은 개혁개방 방침을 표방한 가운데 생산관계와 생산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념적으로 조정을 시도하며 사회주의와 생산력 발전과 경제 효율성을 함께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 단계에서 중국 지도부는 부나 복지의 공정한 분배보다는 신속한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중앙의 통제경제 정책을 중지하고 권력 분권화 및 사적 소유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에 기초하여 "선부론(先富論)"이라는 방침 하에서 신속한 경제발전의 실현 장소로 중국 동남부 연해 지역을 선택하였다. '트리클 다운'(trickle-down) 경제 효과를 기대한 이 불평등 발전 전략은 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잠재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발전을 이룩하면 성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전체 지역의 경제 발전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10] 그 결과, 독자적인 발전 능력이 없고, 어느 측면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전체 "공동 부유"와 발전에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소수민족이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 서부지역에 대한 개발은 상당 기간까지 미뤄지게 되었다.

등소평의 선부론과 "양개대국(兩個大局)"[11] 방침에 근거하여 추

---

10) Yueyao Zhao, "Pivot or Periphery? Xinjiang's Resional Development", *Asian Ethnicity,* 2, 2001, p. 200.

11) "양개대국(兩個大局)"은 1988년 등소평이 제기한 전략으로, "연해지역이 신속히 대 외 개방을 하여 2억 인구를 가진 이 광활한 지역을 빨리 발전시킴으로 써, 내지의 발전을 더욱 잘 이끈다. 이것은 대세와 관련된 문제로, 내지는 이 전반적인 대세를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일정한 발전

진된 중국 동부 연해지역 우선 발전 전략은 실제로 연해 지역과 중국의 경제를 급속하게 발전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자원과 부의 분배 등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지역 간 산업 구조의 불균형을 낳았다. 지역 간의 실질적인 경제적 불평등은 중·서부 지방 정부의 중앙 정책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확대되어 중앙-지방 정부 간 마찰, 나아가 사회 불안정과 민족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통합'을 해치는 주요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동부 연해지역 및 중국 전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등 새로운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였다.[12] 이에 중국 정부는 동부와 중·서부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과 정치·사회적 안정을 담보하기 위해 중·서부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 중국 정부는 경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94년 9월 장쩌민(江澤民)은 "동부와 서부의 격차를 없애는 것은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발전시키고, 각 민족이 공동으로 부유해지며 민족단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여 서부 지역에 대한 발전 계획을 언급했다. 이어 1995년 중국공산당 제14차 5중전회에서 중국의 제9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1996~2000) 중·서부 지역에 대한 발전을 중시하여 지역 간 격차를 완화시키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3] 게다가 20세기 말 동아시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금융 위기와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중국 경제 구조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단계에 이르러서는 연해 지역에 더 많은 역량을 내어 내지의 발전을 돕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또한 한 대세이다. 그때 연해 지역은 이 대세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鄧小平文選』 第3卷, 人民出版社, 1994, p. 278.

12) 윤휘탁, 「現代中國의 西部 邊疆民族政策과 '國民國家' 完成 하기 - '西部大開發'을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37, 2005, pp. 251-253.

13) 김병호, 「중국 서부대개발의 정치·경제적 의의」, 『평화연구』 9, 2000, p. 99.

중국 정부의 지역 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을 더욱 촉구시켰다. 즉, WTO의 가입으로 관세를 조정해야 하고 금융, 통신, 운수, 관광지 등이 개방되어 국제사회와 경쟁해야 한다. 대외개방은 또한 대외 경쟁력을 시급히 향상시켜야 하고 국유기업의 구조 조정도 요구된다. 이것은 대량의 실업자 양산과 같은 고용 불안정 문제를 야기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도 모색해야 한다.[14] 이에 1999년 장쩌민(江澤民)은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발전 전략인 "서부대개발"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2001년 국무원은 서부지역 개발지도그룹을 구성하고 서부 각 지역의 발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갔다.

중국 중·서부 지역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21세기 중국 경제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서부대개발" 전략에서 가리키는 '서부'는 청해, 감숙, 섬서, 사천, 운남, 귀주, 중경, 신강, 티베트, 영하, 내몽골, 광서 장족자치구 등 12개 성·시·자치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총면적의 71.5%를 차지하며 인구는 3.55억 명으로 전국 인구 총수의 28.4%를 차지한다. 이 지역은 또 중국 소수민족 인구 총수의 72.64%를 점하고 있는 소수민족 집거지역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의 나열된 지역 가운데는 엄밀한 의미에서 '서부'라고 할 수 없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며, 소수민족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내지와 많이 떨어져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서부'는 정치적, 경제적, 이념적으로 고안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부터 향후 반 세기동안 진행되는 이 거대한 국가 프로젝

14) Hongyi Harry Lai, "China's Western Development Program: Its rationale, Implementation, and Prospects", *Modern China*, 28, 2002, pp. 441-444; 김재기, 「중국의 민족문제와 '서부 대개발': 정치경제적 배경과 딜레마」, 『한국동북아논총』 제18집, 2001, p. 156.

트는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 기반 설비를 구축하고, 동·서부 지역 균형 발전, 생태환경의 복원, 관광자원의 활성화, 소수민족 지역의 안정 등의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해성 거얼무에서 티베트 라싸에 이르는 철도 건설, 신강 타림분지에서 상해까지 연간 120억㎥의 천연가스 운송 파이프라인의 건설(西氣東輸), 감숙 란주에서 사천 중경까지 석유 운송 파이프라인 건설, 서부의 수력·화력발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동부 지역으로 보내는 서전동수(西電東輸) 프로젝트, 동부의 연운항에서 유럽 암스테르담까지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 연결 사업, 서부 지역의 균형 개발을 위해 주요 거점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국도건설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15]

또한 소수민족이 압도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는 중국 민족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정치적 측면이 강하다. 2005년 5월 후진타오(胡錦濤)는 중앙민족공작회의(中央民族工作會議)의 담화에서 "각 민족의 발전 수준의 격차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고 그 축소와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중앙의 소수민족과 민족 지역에 대한 지원의 강화, 자금 투입과 우대 정책, 인프라 정비, 문화·위생·교육 사업 등 각종 사회사업의 준비를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담화에서는 소수민족과 민족 지역의 경제 및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국의 민족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이라고도 기술하고 있다.[16] 다음 해 2006년 10월의 16기 6중전회에서도 이 방침은 계승되고 있다.[17] 지역 격차 혹은 지역 내 격

15) 김재기, 앞의 논문, pp. 157-158; 이중희, 「장쩌민 시대의 소수민족정책과 서부대개발」, 『아시아연구』 6, 2003, pp. 84-86.

16) 「在中央民族工作會議暨國務院第四次全國民族團結進步表彰大會上的講話」, 『光明日報』 2005년 5월 27일, http://www.gmw.cn/01gmrb/2005-05/28/content_240705.htm.

17) 「中共中央關於構建社會主義和諧社會若干重大問題的決定」, 中國共産黨歷次

차 해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지원이 민족 간 격차의 축소와 해소로 나아간다고 하는 낙관주의 경향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경제 발전과 근대화를 통한 국가 통합을 추구하는 중국 정부의 사고에는 소수민족에 대한 온정주의적이면서도 무시하는 태도가 동시에 내재되어 있다. 소수민족은 마치 '근대화된 큰 형님'인 한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원시적'이고 '빈곤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그래서 때로는 소수민족에 대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큰 형님'의 은혜를 '칼부림'이나 '폭탄 테러'로 갚는 '배은망덕'한 민족 집단으로 묘사하는 목소리도 중국 국내에서 자주 들을 수 있다. 50년 장기 프로젝트로 실행 중인 서부 개발전략을 실행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1950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정부의 신강에 대한 투자는 약 3,860억 위안에 이르고, 1978년부터 2008년까지 신강의 1인당 GDP는 28배 증가하였으며 2008년 중국의 31개 성급 단위 가운데 15번째를 기록하였다.[18] 이와 같이 막대한 재정 지원과 두드러진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사회 안정을 해치는 문제들은 왜 그치지 않고 더욱 빈번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래에서 신강위구르자치구에서 정부의 경제 개발에 기초한 통합관의 구체적인 실천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全國代表大會數據庫, http://cpc.people.com.cn/GB/64162/64168/64569/72347/6347991.html, 2015년 2월 9일 검색.

18) Yufan Hao · Weihua Liu, "Xinjiang: increasing pain in the heart of China's borderland",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1, 2012, p. 206.

2) 신강에서의 개발 전략의 실천과 격차의 '민족화'

중국 서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신강위구르자치구는 중국 전체 면적의 1/6을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 천연가스를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에서 경제 발전에 따른 급증하는 에너지 자원의 수요를 충당하는 '에너지 기지'로 중시되고 있다. 2008년 신강은 중국에서 석유 생산에 있어 2위, 천연가스 생산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게다가 중국에서 발견되는 147개 원자재 가운데 115개를 가지고 있으며, 면화, 축류(畜類), 비철금속의 주요 산업 기지이다.[19] 또, 러시아, 몽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유라시아의 주요 연결 지역으로써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중국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된 소수민족 가운데 거의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집거지역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전부터 일부 투르크계 무슬림 세력이 독립국가 수립을 시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족 문제'의 불씨를 항상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역의 민족 갈등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는 한족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신속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신강의 북부 지역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다. 반면에 토착 위구르인들은 주로 남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과 목축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19) Yufan Hao · Weihua Liu, 앞의 논문, pp. 211-212.

〈표 1〉 신강위구르자치구 지역 인구 민족 분포 현황

연도	민족인구 비율(%)					
	北疆			南疆		
	소수민족	한족	대비차	소수민족	한족	대비차
2000	37.04	62.96	-25.92	83.03	16.97	66.06
2003	38.28	61.72	-23.44	82.06	17.94	64.12
2006	38.27	61.73	-23.46	84.80	15.20	69.60
2009	39.19	60.81	-21.62	76.86	23.14	53.72
2011	39.83	60.17	-20.34	83.82	16.18	67.64
2012	40.02	59.98	-19.96	82.83	17.17	65.66

출처) 吳良平・劉向權・尙陽, 「新疆人口結構的民族差異及其問題研究 - 基於六普數據的分析」, 『西北人口』 第1期, 2015, p. 107.

신강의 1인당 GDP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국 평균 수준과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그림 1 참조), 2008년 31개 성급 단위 가운데 15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두드러진 성장을 거두고 있다. 이것은 중앙 정부의 자치구에 대한 지원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민족성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자치구 경제 성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자치구 내 지역별 1인당 GDP는 한족 인구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라마이, 우루무치와 같은 도시가 상위를 기록하고 있고, 소수민족 인구가 비교적 밀집되어 있는 호탄이나 카슈가르는 하위에 위치하고 있다.[20] 또 1993년 이후 자치구 내 도농 간 소득 격차 비율은 자치구와 중국 전국 평균 격차보다 오히려 크며[21],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은 소수민족이 압도적으로 높다.

20) Yufan Hao・Weihua Liu, 앞의 논문, pp. 214-215.

21) Cao Huhua, "Urban-Rural Income Disparity and Urbanization: What Is the Role of Spacial Distribution of Ethnic Groups?", *Regional Studies*, 44(8), 2010, p. 968.

〈그림 1〉 1978-2004년 신강위구르자치구 연간 경제성장율[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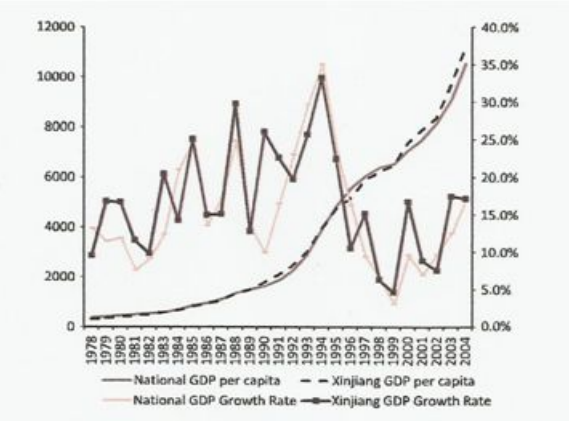


표 2)와 표 3)은 각각 2000년과 2010년 신강 각 민족 취업 인구의 업종별 구성 비율을 표시한 것이며, 표 4)는 업종별 평균임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80% 이상의 위구르인들이 농업과 같은 제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한족은 각각 37%와 3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전문기술직의 경우, 위구르인의 경우 자치구 내 다른 소수민족보다도 낮았고 한족보다는 더욱 적었다. 즉, 자치구에서 민족별 직업 계층화와 경제적 위계화가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2000년 신강 각 민족 취업 인구의 업종별 구성

(단위: %)

	위구르족	漢族	카자흐족	몽골족	키르키즈족	回族
농·목·임·어업	80.60	37.32	78.01	61.57	85.20	60.90
채굴업	0.39	2.28	0.85	0.77	0.50	1.14
제조업	3.79	12.80	2.17	4.12	0.45	5.92

22) Xiaogang Wu, Xi Song, 앞의 논문, p. 161.

전력・가스・수도업	0.43	1.76	0.59	1.30	0.14	1.12
건축업	0.51	6.92	0.20	0.72	0.08	1.43
지질조사・수리시설 관리	0.27	0.97	0.29	0.33	0.08	0.33
교통운수・우편전신・통신업	1.26	5.51	1.26	2.11	0.65	3.99
도소매・음식업	4.04	12.83	2.12	3.42	2.03	13.35
금융보험업	0.26	1.48	0.47	0.74	0.19	0.79
부동산업	0.04	0.46	0.04	0.07	-	0.23
사회서비스업	1.17	5.21	0.84	2.32	0.42	3.25
위생・체육・사회복지업	0.93	2.17	1.49	3.38	1.27	0.93
교육・문화예술・방송업	3.33	3.80	6.79	9.07	5.26	2.50
과학연구・종합기술서비스업	0.06	0.52	0.08	0.21	0.17	0.13
국가기관・政黨기관・사회단체	2.54	4.84	4.45	9.37	3.34	3.26
기타	0.39	1.13	0.35	0.66	0.14	0.51

출처) 李靜・王麗娟,「新疆各民族間的結構性差異現狀分析」,『新疆社會科學』第6期, 2007, p. 47.

〈표 3〉 2010년 신강 주요 민족의 직업 분포 현황

(단위: %)

	위구르족	한족	카자흐족	몽골족	키르키즈족	회족
국가기관・정당・기업단위	0.45	3.37	0.14	2.66	1.77	1.35
전문기술직	4.24	13.02	7.36	13.95	6.31	6.09
사무직	1.92	6.81	3.64	7.06	3.25	3.62
상업・서비스직	5.81	23.17	5.03	8.82	3.42	18.86
농・목・임・어업	83.01	31.94	78.10	59.88	82.29	57.53
운송・설비직	4.45	21.48	4.59	7.55	2.94	12.40
기타	-	0.21	0.05	-	-	0.15

출처) 吳良平・劉向權・尙陽,「新疆人口結構的民族差異及其問題研究-基於六普數據的分析」,『西北人口』第1期, 2015, p. 107.

〈표 4〉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업종별 평균 임금

(단위: 元)

	1990년	2000년	2010년
농·목·임·어업	1,741	5,573	20,174
채굴업	3,285	13,524	48,338
제조업	2,200	8,209	31,666
전력·가스·수도업	2,655	13,223	44,435
건축업	2,356	10,220	29,339
지질조사·수리시설 관리	3,564	8,999	26,220
교통운수·우편전신·통신업	3,025	12,790	47,070
도매·소매·음식업	2,218	8,243	32,726
금융보험업	2,606	13,714	59,082
부동산업	2,283	11,044	23,288
사회서비스업	2,080	8,340	22,531
위생·체육·사회 복지업	2,654	10,114	33,381
교육·문화예술·방송업	2,561	9,398	33,014
과학연구·종합기술서비스업	2,735	11,505	38,696
국가기관·政黨기관·사회단체	2,548	9,494	36,753
기타	-	12,388	-

출처) 新疆維吾爾自治區統計局, 『新疆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2001, pp. 92-93.

그렇다면 국가의 신강지역 개발 전략이 의도한 것과 달리, 이와 같은 자치구 내 경제적 불평등이 오히려 계속 확대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지난 몇 십 년 동안 중국의 신강 발전은 신강의 기반 시설 구축과 석유, 천연가스 추출, 광업 및 석유화학공업 등 중공업 건설, 면화 생산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것은 신강 지역에서 많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하였고, 신강 이외 다른 지역으로부터 신강으로의 이주의 새로운 고조를 가져왔다. 1995년에서 2004까지 신강의 위구르 인구는 1,180,000명 증가한 반면에 한족

인구는 1,480,000명 증가했다. 또 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서 온 임시 이주자의 경우 1990년 341,718명에서 2010년 1,791,64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들은 대개 한족 출신으로 신강 전체 인구의 8.21%를 차지하였다.[23] 이들 한족 출신 임시 이주자들의 증가는 신강 지역 노동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했고, 민족 간 노동 구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가 중요한 작용을 했다.

1988년까지 중국 정부는 사영기업(private enterprise)[24]을 승인하지 않았다. 등소평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과 국유기업의 구조 개혁 노력 등으로 사영 기업 발전은 중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에 1999년 이후에는 사영 기업주의 당원(黨員) 자격 획득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들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25] 중국 GDP에서 사영 기업과 개체호(個體戶) 등의 기여는 1990년 4.1%에서 2005년 20.3%로 증가하였고, 사적 부문의 도시 고용 점유율도 1990년 18.5%에서 2005년 73.3%로 급격히 늘었다. 신강에서의 사적 부문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신강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2%에서 6.8%로 증가하였고, 도시 고용 점유율도 4.8%에서 46.2%로 상승하였다.[26] 이런 변화는 노동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즉, 국영 기업의 경우, 사회 정의 실현의 측

23) Xiaogang Wu, Xi Song, "Ethnic Stratification amid China's Economic Transition: Evidence from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Social Science Research* 44, 2014, p. 161.

24) 사영 기업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개인 비즈니스, 사영 기업, 민영 경제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국유기업에 대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대개 기업의 등록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원호, 「1990년대 중국 사영기업의 성장과 지역발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8권, 2005, p. 286.

25) 위의 논문, p. 287.

26) Xiaogang Wu, Xi Song, 앞의 논문, p. 162.

면에서 소수민족 우대 정책과 같은 중앙 정부의 규제를 비교적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이런 정책에 근거하여 소수민족의 고용 비율도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 경제 요소의 도입으로 사적 부문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도산하는 국영 기업이 늘어나고 정책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던 소수민족 성원이 대량으로 직장을 잃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편, 국영 기업과 달리 사영 기업은 정부의 공식 규제로부터 훨씬 자유로운 면이 있고, 사회 정의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사영 기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자 고용에 있어 언어나 기술적인 면에서 일정 유리한 조건을 갖춘 한족 출신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신강의 남북 간의 경제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앙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신강 남부에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Petro China)나 중국석유화학주식회사(SinoPec)와 같은 대규모 국영기업을 발전시켰다. 하지만 이들 국영 기업체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고용에 있어 한족 출신자를 선호하였다.[27] 그러나 소수민족 성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신강 지역 경제 개발은 자치구에 적을 두고 있는 한족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기회'를 찾아 자치구로 유입된 많은 다른 지역 민족성원들-대부분이 한족-과도 경쟁을 벌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업 혹은 고용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는 것으로 느낄 수 있다.[28] 다시 말해서, 자치구를 개발함으로써 소수민족지역과 그 성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부를 가져다준다는 정부의 정책 선전과 달리, 많은 소수민족 성원들은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한족이 독식하고, 한족이 누리는 부는 지역에 대한 한족의 '착취'에 의한 것

27) Shan Wei · Weng Guifen, "China's New Policy in Xinjiang and its Challenges", *East Asian Policy*, p. 60.

28) Xiaogang Wu, Xi Song, 앞의 논문, p. 170.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 중앙 정부의 개발 전략은 비록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 있지만, 지역 소수민족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지역 '비포용적'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책 자체가 지역 성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의 이익 창출을 위해 고안되고 강요된 실행에 기인한다.[29] 그리고 이것은 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한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역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지역의 이익을 중앙과 상급 기관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킬 수 없는 소수민족 출신 지역 엘리트의 부재나 약화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0] 이것은 결국 현재 중국의 민족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는 민족구역자치법의 한계와 중국공산당 조직 내에서 소수민족 출신 지역 엘리트의 실제 영향력의 약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신강 지역 내 경제 불평등의 확대에는 효율을 강조하는 시장 경제체제의 도입이나 자원과 이익 분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수민족 성원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권력 구조의 한계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있음은 인정하더라도, 小嶋祐輔가 지적한 것과 같이[31], 그것을 모두 '민족 차별'과 같은 '민족' 카테고리 내에서만 다룬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문제의 본질을 은폐시키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앞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록 소수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제2·3차 산업에 종사하는 소수민족

29) Jessica Koch, "Economic Development and Ethnic Separatism in Western China: A New Model of Peripheral Nationalism", *Asia Research Centre Working Paper,* 134, 2006, p. 13.

30) Jessica Koch, 위의 논문, pp. 7-9.

31) 小嶋祐輔 「"民族"化される格差-新疆ウイグル自治區を例に」, 『中國21』 30, 2009, p. 207.

성원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데 일부 소수민족 성원들의 경우, 그런 경제적 불평등과 그것에 대한 불만을 단순히 '민족' 이데올로기에서만 파악하여, 동일 민족 성원들 가운데 고소득층 민족 성원에 대해 "민족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로 묘사하며 그들을 민족 공동체에서 배제시키려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해석은 오히려 민족 내 적대관계를 형성하여 민족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32]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국의 신강 지역에 대한 경제 발전 전략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체제의 심화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정치적 한계로 인해 지역의 다수 소수민족 성원들을 포용하지 못한 채, 중앙과 다른 지방 정부 및 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다. 그리고 자치구로 들어온 대량의 외부 인원의 유동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한족과 자치구 소수민족 간 민족 문제로 표면화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3. 신강위구르자치구의 관광 개발과 실천

중국의 근대 관광은 1970년대 말 정치경제 체제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이익 창출의 한 수단으로 촉진되었다. 이에 관광 부문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의 5개년 발전 계획에 포함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의 많은 지방 정부는 관광을 지역경제개발의 일환으로써 중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관광은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경제주의 논리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와 집단, 개인의 이해관계가

32) 小嶋祐輔, 앞의 논문, p. 207.

복잡하게 얽혀있음으로 해서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관광은 어느 특정 지역의 지리적 공간을 풍경이나 문화 등으로 다시 재창출하게 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정서적으로 소비하게 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그 선택과 재구성의 행위 속에는 행위 주체의 의지와 다양한 가치 판단의 개입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국가 행정, 시장, 관광객과 같은 '타자'가 참여함으로써 관광 개발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중요한 창구가 되기도 하고 내적 오리엔탈리즘을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기도 한다. 또 이 과정에서 상호 간의 문화 변용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관광이라고 하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관광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상호 작용과 그 속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카나스 관광지구를 중심으로 관광이라고 하는 사회적 실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동태들을 살펴본다.

신강위구르자치구의 카나스 관광지구는 자치구 서북단의 알타이 지역 부얼진현(布爾津縣)에 속해 있다. 빙하, 호수, 삼림, 초원, 희귀 동식물, 민족 문화 등이 혼합되어 있는 카나스 관광지구는 '동양의 스위스'라고 불리며 중국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몽골 등 국가와 인접해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몽골계 투바인, 카자흐족, 한족, 회족, 러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투바족과 카자흐족이 주요 민족 구성원이다. 투바족은 몽골계의 후예로 투바어와 몽골어를 사용한다. 전통적으로 샤머니즘과 라마 불교, 유목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지역 관광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구는 대략 1,800명 정도이며, 부얼진현의 허무카나스향(禾木喀納斯鄕)과 하바하현 티엘커티향 바이하바촌(哈巴河縣 鐵列克提鄕 白哈巴村)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33] 카자흐족은 투르크계

33) 曾嶸, 『旅遊對目的地社會文化影響的實證研究-以喀納斯風景區圖瓦人爲例』,

의 유목민 집단으로, 현재는 대개 5,6월부터 10월까지 정부가 허가한 목초지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겨울에는 한 곳에 집합하여 정주생활을 하고 있다. 허무향과 티엘리커티향 두 향 정부는 카나스 자연보호구 관리처, 토지관리국, 임업국, 교통국, 허무카나스 몽골민족향 등 카나스 관광지구와 관련이 있는 부문으로 구성된 카나스 관광 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 관광지구 내 주요 관광 프로그램은 신강 대서부 관광 유한책임회사(新疆大西部旅遊股份有限公司)의 부얼진현 관광회사(布爾津縣旅遊公司)가 경영을 맡고 있다.[34]

카나스 관광구역은 198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자치구 정부에 의해 지역의 숲이나 야생 동·식물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어 '카나스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관광 여행보다 조사, 탐사 목적이 더 강했고 관광객 수 역시 적었다. 주로 인접 현(縣)과 도시의 정부 관료나 사업가 또는 동부로부터 온 그들의 손님들이 대부분이었고 약간의 배낭여행가도 있었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관광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대개 현지 주민들의 시설을 많이 사용하였다.[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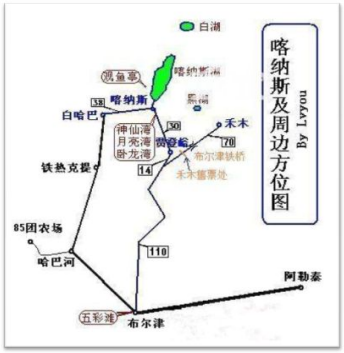
新疆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p. 7.

34) 董雯·閻耀平, 「新疆喀納斯圖瓦部落文化的開發策略」, 『乾旱區資源與環境』 第2期, 2005, pp. 138-139; 陳實雄·努爾古麗 阿不都蘇力, 「喀納斯國家地質公園 經營管理模式問題研究」, 『商, business』 第21期 2013, p. 39; Jingjing Yang, Chris Ryan, Lingyun Zhang, "Sustaining culture and seeking a Just Destination: governments, power and tension- a life- cycle approach to analysing tourism development in an ethnic-inhabited scenic area in Xinjiang, China",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2(8), 2014, pp. 1156-1157.

35) Jingjing Yang, Chris Ryan, Lingyun Zhang, 앞의 논문, pp. 1157-1158.

〈그림 2〉 신강 관광 지도와 카나스 주변방위도





성장의 촉매는 외부로부터 일어났다. 1985년 중국공산당 고위 관료가 알타이 지역의 관광 발전을 제안한 후, 이듬 해 국가급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관련 기관이 설립되면서 카나스에 대한 관광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고, 동부에서 온 장거리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등 관광객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1995년 유엔 환경보호 관련 전문가가 카나스를 방문하고 "지구상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마지막 지역이다"라고 언급한 것이 전해지면서 "인류정토(人類淨土)"의 이미지로 외부에 선전되기 시작했다.[36]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선전 하에 카나스 가을 사진축제와 같은 행사도 개최되는 등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하지만, 도로나 통신 시설, 숙박, 식당 등 관광을 위한 제반 시설은 여전히 부족했다. 이후 국가의 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 전략 하에 중앙 정부와 지역 기관, 외부에서 온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교통, 전기, 물 공급 등 주요 기반 시설과

36) 王海燕·李曉東, 「旅遊地生命週期理論與旅遊產品開發初探」, 『資源與產業』 第4期, 2006, p. 91.

호텔, 식당, 상점 등이 건립되었다. 이후 관광객은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카나스 관광지구에 집계된 관광객 수는 약 118만 명을 기록했다. 관광 수입도 증가하여 2012년 입장료 수입만 1억 위안, 관광 총 수입은 15억 위안 이상을 기록했다.[37] 이렇게 카나스 관광지구는 신강 자치구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가 되었고 지역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중앙 정부의 지원과 외부 자본을 끌어들인 카나스 관광구역 개발은 점차 자원을 둘러싼 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낳기 시작했다. 카나스 관광지구로 구획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데 필요한 도로 정비나 대규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카나스 관광센터, 호텔, 식당과 같은 제반 시설 구축에는 많은 토지 자원이 필요했다. 특히, 관광지구 중심에는 투바인의 집거지가 있었다. 지방 정부는 이들을 원래 촌(老村)에서 서남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촌(新村)을 만들어 이주하도록 했다. 이에 일부는 원래 투바 촌(老村)에 그대로 머물렀고 일부는 신촌(新村)이나 인근 허무향과 바이하바촌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또 일부는 완전히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기도 했다.[38] 이들에게는 약간의 이주비용(대개 5,000-10,000 위안 RMB)이 지급되었지만, 일부는 이주로 인해 관광구역에서 멀어짐으로써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으며 이주에 따른 보상 역시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는 등 현지 주민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이주 결정과 부적절한 보상책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39]

카나스 관광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관광지구 내 일부 현지인들은 관광시즌에 자신들의 전통 가옥을 숙박과 관광 편의시설 등으로

37) 陳實雄・努爾古麗 阿不都蘇力, 앞의 논문, p. 39.
38) 姚娟・田世政, 「社區居民"整體搬遷"模式對生態旅遊景區管理的影響－以新疆喀納斯生態旅遊景區爲例」,『林業經濟』第6期, 2007, p. 67.
39) Jingjing Yang, Chris Ryan, Lingyun Zhang, 앞의 논문, p. 1160.

임대하여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다.[40] 또 일부는 승마 프로그램의 말 대여나 소수민족 전통문화체험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토산품이나 민속 공예품 판매 등에 종사하며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했다.

한편, "조화로운 사회" 건설과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의 강화 등을 강조한 국가의 제11차 5개년 발전 계획(2006~2010)에 따라, 정부는 2006년부터 자연환경 보호, 현지 소수민족 전통문화와 생활방식 보호 등을 위한 "카나스관광지구종합계획(大哈納斯旅遊區總體規劃)"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원시의 아름다움과 투바인 등의 신비로운 민족문화'를 주요 관광 상품으로 선전하고 홍보하던 카나스 관광지구 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참여 방법이다"라는 전략 하에, 관광객과 현지인의 접촉을 줄이는 방침을 정했다. 이로써 관광 지구 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게스트 하우스의 영업이 정지되고 각종 시설물이 철거되었다. 숙박이나 식사는 모두 관광지구 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해결해야 하고, 말 타기 역시 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 지정 장소에서만 운영되었다. 이런 관광지와 주거지를 분리하는 정책은 관광지의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관광객을 상대로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거나 말을 빌려주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있던 현지인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41] 이에 일부 카나스 촌민들은 2007년 현지인이 관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들의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으며, 몰래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는[42] 것으로 정부 조치에 대한 그들 나름의 '일상적인 반항'을 하기도 했

---

40) 姚娟・田世政, 앞의 논문, p. 67.

41) Jingjing Yang, Chris Ryan, Lingyun Zhang, 앞의 논문, p. 1161.

42) 孫九霞・史晗晗, 「旅遊商業化的社區治理研究-以新疆喀納斯社區爲例」, 『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3期, 2012, p. 50.

다. 이런 관광지구 내 관광 자원을 둘러싼 현지인과 관리자 혹은 개발업자 간의 갈등은 카나스 관광지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소위 "샹그리라 여행" 루트에 있는 쓰촨(四川) 따오청(稻城)에서도 2007년 지역 내 관광지의 숙박이나 도로 사용 등을 둘러싼 관리처와 장족(藏族) 현지인들 간의 갈등이 마찰로까지 확대되어 심지어 관광지가 폐쇄되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했다.[43] 이와 같은 관광개발에 따른 자원과 이익 분배를 둘러싼 관계자 간의 갈등은 현지 소수민족 성원들이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중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나 개발업자가 계속해서 현지 민의를 무시할 경우, 현지 주민의 나름의 '일상적인 반항' 행위는 그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관광지구 관리위원회의 관리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지역의 관광개발은 현지 주민과 관리자 또는 개발업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관광개발에 참여하는 민족 성원과 그렇지 않은, 즉,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 활동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민족 성원 간의 갈등도 낳는다. 후자의 경우, 관광개발과 관광 상품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관광 자원의 '보호'라는 명목하에 정부에서 취한 각종 조치, 예를 들어, 유목 기간과 유목 지역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44] 또 일부 현지 유목민들은 개발업자가 초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을 약속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 기간 동안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 오수와 쓰레기 등에 의해 초지가 완전히 파괴

43) 「稻城亞丁景區封閉的眞相」, http://blog.sina.com.cn/s/blog_70a067c00100l5be.html.

44) 모종혁, 「'중국 속의 스위스'… 유목이냐, 관광이냐」, 오마이뉴스 2007년 10월 22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44960.

되어 최종적으로 그들의 경제권리가 크게 침해받았다고 불만을 호소한다.[45] 이러한 불만은 결국 동일 민족 그룹 내에서 관광과 유목을 둘러싼 충돌을 야기하기도 한다.[46]

또한, 관광개발은 지역 내 민족 간 관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카나스 관광지역의 경우, 당국과 개발업자는 카나스 지역의 수려한 자연 풍광뿐만 아니라, 이 지역 소수민족의 전통문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함으로써 외부 여행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개되는 소수민족문화는 대개 몽골계 투바인의 전통문화로, "인류 농경 문명 이전 유목문화의 살아있는 박물관", "인류 정토", "구름 속 동화 같은 마을"처럼 신비감 가득한 이미지로 묘사되곤 한다. 이것은 혼잡한 도시의 바쁘고 경쟁적인 삶에서 잠시나마 탈출하고자 하는 현대 도시인들의 느긋하고 평화로운 유토피아적 세계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고, 현대 문명과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신비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에 현지 정부는 이와 같은 외부인의 정서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지의 자연·인문 관광자원을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소수민족 성원들은 '화려하고 이색적인' 전통 복장을 입고 외부 여행객들과 사진을 찍고 그들을 위해 전통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의례를 재연한다.

하지만, 소수민족 문화의 '디즈니화'는 때로 지역 내 민족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관광지구의 개발로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 많은 한족과 카자흐족이 관광지로 유입해왔다. 이들은 '목가적이고 신비로운' 투바인의 전통 문화에 대한 외부 여행객들의 수요를 재빨리 인지하고, 투바인 집거지에 들어가 전통 가옥을 지어 숙박업

45) 關丙勝, 『族群的演進博弈：中國圖瓦人研究』, 廈門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p. 326.
46) 모종혁, 앞의 글.

을 하거나, 투바인 복장을 하고 그들의 악기를 들고 노래와 춤을 시연한다. 그들은 또 그들의 식당이나 상점에 투바인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한다. 반면에 관광 개발에 한족과 카자흐족만큼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투바인 중에는 관광지로도 초지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에서 초지 보상으로 받은 약간의 보상금에 기댄 채 음주가 직업이 되어 버린 젊은이들도 생겨났다. 이들은 폭력, 절도와 같은 지역 사회에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며, 주변의 다른 민족 성원들로부터 '타락한' 투바인으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47]

이와 같이 관광 개발과 발전은 자원 배분을 둘러싼 정부나 개발업자와 현지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고, 개발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문 간의 모순을 낳기도 한다. 또 관광 지구의 지리적 공간의 재창출은 경제적 격차를 낳고 관광과 유목이라고 하는 생존을 둘러싼 민족 집단 내 모순을 초래한다. 그리고 이것은 지역 내 민족 간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지역 사회에 많은 새로운 문제들을 낳고 있다. 즉, 관광을 통한 소수민족 지역의 대외 개방과 시장 경제체제의 도입, 개발과 도시화는 지역 사회의 경제적, 문화적 위계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이것은 때로는 민족별 분화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서로 다른 경제·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가 접촉을 했을 때 쌍방은 서로 문화변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만, 두 사회의 강약 관계로 인해 이런 과정은 대등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경제적 상황, 인구수 등 각종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관광지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키거나 취업 문제 해결 등 방면에서 관광 활동에 참여한다. 그리고 관광 목적지는 가능한 한 외부 여행객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을 '개조' 혹은 재구성

47) 關丙勝, 앞의 논문, pp. 298-299.

의 과정을 거친다. 자발적인 행위로 보이는 이 과정에는 실제로 일종의 압력이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득이함과 같은 요인이 암묵 중에 작용하여 결국에는 중심 문화로 동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카나스 관광지구의 경우, 외부 여행객들과의 접촉이 많아짐에 따라 한어(漢語)나 영어를 사용하거나 배우려는 민족 성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경제적 이익 창출과 취업 해결의 한 방법으로써 현지 지역 관료에 의해 장려되기도 한다. 투바인은 언어는 있지만 문자가 없다. 일상생활에서는 투바어를 사용하고 공적 업무에서는 표준 몽골문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렇게 투바인과 여행객의 접촉이 나날이 증가할 경우, 장래 어느 날 중국 투바인 공동체에서 투바어는 점차 주변화되고 소실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음식 습관 역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투바인들이 매일 먹는 음식 중에는 만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한 리에바(列巴)라고 하는 구운 빵과 젖술이 있다. 그들은 유제품, 소·양고기와 粉食을 주식으로 하고, 나이차(奶茶)를 끓여 마시거나 요구르트, 젖술(奶酒), 치즈 등을 만들어 먹는다. 하지만 외부 세계와의 접촉으로 볶음 요리나 면 요리, 국물이 있는 식사도 자주한다. 또 직접 만들어 마시던 젖술 대신 상점에서 파는 맥주를 사서 마신다. 이것은 40세 이하 남자는 음주를 할 수 없다고 하는 투바인들의 오랜 금기마저 깨뜨린다.[48] 이와 같이, 과거 유목생활에 기초한 음식문화는 이제 농경문화나 전지구화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 당국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현지의 각종 민속 문화나 의례 등 '전통 민족문화'유산을 차용하여 다양한 문화제나 축제와 같은 각종 이벤트를 개최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방 정부는 전통 민속문화의 시간과 공간을 바꾸기도 한다. 이 과

48) 關丙勝, 앞의 논문, pp. 264-272.

정에서 제사 의례(敖巴節 등), 유목과 수렵생활을 위한 신체 단련(賽馬·射箭·滑雪 등), 남녀 사교 방식(姑娘追 등)으로부터 발전한 다양한 소수민족의 전통 민속 문화가 함의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는 인위적으로 거세된다. 하늘, 땅, 태양, 달, 자연의 '신(神)'에게 제사를 지내던 종교 의례는 외부에서 들어온 '인(人)'을 위한 연출로 대체되어, 단순하게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오락성을 추구하는 상업적 가치로 치환된다. 또 각종 이벤트는 종종 "중화민족의 단결"이나 "조화 사회(和諧社會)"건설과 같은 국가 이데올로기를 실천하기도 한다.[49] 관광지 곳곳에는 전에 없던 한어로 된 이름도 붙여져 이곳은 언제나 '중국'임을 외부 세계에 보여주며 이곳을 역사적인 '중화제국'과 견고하게 연결시킨다.

요컨대, 국가의 지역개발 전략 하에서 지방 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 산업은 비록 지역과 일부 성원에게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관광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민족 성원의 배제, 정책 실천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등으로 관광 자원과 이익 분배를 둘러싸고 지역 사회 내에서 지역 간, 민족 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위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또 관광은 사회경제적으로 차이가 있는 외부와의 일상적인 접촉으로 변방의 소수민족 문화의 중심부 문화(중원문화든 코카콜라문화든)로의 동화를 가속화하고, 소수민족의 '전통 문화'를 외부 '타자'의 기호로 '개조'시킴으로써 '중화민족 대가정 만들기'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실천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

49) 2015년 1월 1일 카나스 허무에서 개막된 제8회 카나스 눈 축제(喀納斯冰雪風情旅遊節)의 주제는 "童話雪鄉話民族團結 醉美鄉愁頌和諧社會"로, 투바인 청년들이 환한 표정을 지으며 "카나스에서 투바인이 중국 전역의 '人民'에게 새해 인사를 전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진이 매체에 함께 소개되었다. 「新疆喀納斯第八屆冰雪風情旅遊季精彩開幕」, 天山網. 2015년 1월 3일. http://news.ts.cn/content/2015-01/03/content_10878687.htm.

4. 맺음말

본고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비근대적'이며 그리고 다수에 상대적인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중국의 '서부' 지역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자와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의 민족 간 갈등과 마찰로 표면화되는 '민족 소요'가 더욱 빈번하고 극단적인 형태를 띠는 현상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지역개발 전략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을 초래하는 기제를 관광이라고 하는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중앙과 지방 정부에 의해 중점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신강 자치구 서북에 위치한 카나스 관광지구의 개발과 그 실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통한 사회 안정과 국가 통합을 위해 제기된 '서부대개발' 전략은 하지만 그 목표와 달리 지역의 다수 성원들을 포용하지 못한 정책과 실천으로 인해, 비록 지역에 제한된 경제 발전을 가져왔지만 오히려 중앙 정부와 관광개발회사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효율을 강조하는 시장 경제 논리 하에서 더 나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대량의 자치구 외부 인원의 유동으로 실천됨으로써 다양한 요소에서 기인하는 갈등이 '민족' 이데올로기 속에 표면화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된 자치구의 소수민족 관광은 비록 지역과 일부 성원에게 약간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관광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수민족 성원의 배제나 미약한 영향력, 정책 실천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지역의 소수민족 성원들의 자질 문제와 같은 중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의 하향식 명령 체계, "꽌시(關係)"와 같은 사업 관행의 성행, 불평등한 교육 기회 등 정치구조적 한계와 사회 문화적 방해 요소 등이 소수민족의 관

광에의 실질적인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아가 소수민족 지역에 대한 관광 개발은 지역의 소수민족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위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또 관광을 통해서 '타자'의 기호에 맞는 '소수민족 전통 문화'의 재구성은 그것의 '진정성'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비록 본문에서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민족 문화의 '진정성' 문제는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와 부흥, 나아가 민족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관광을 통한 민족 문화의 '소비'는 정치적, 종교적, 지리적, 문화적 원인으로 인해 분리되었던 동일 민족의, 경계를 가르는 이동을 촉진시킴으로써 범민족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인구수 등으로 인해 대개 '근대성'이나 '문명'을 등에 업은 외부 세계와의 일상적인 접촉은 변방의 소수민족 문화의 중심 문화로의 동화를 가속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신강위구르자치구의 관광을 통해서 본 자치구의 많은 소수민족 성원들은 현재 이중의 제국의 압박 속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신강위구르자치구의 많은 소수민족 성원들은 자본주의의 전지구적 배치 하에서 사람들의 삶이 자본에 포섭되어 있는 '자본주의 제국'과 '중화민족'이라고 하는 고차적인 아이덴티티에 '(소수)민족 아이덴티티'를 종속시킴으로써 '중화민족 대가정'을 만들고, 신강위구르자치구를 역사적인 '중화제국'과 견고하게 연결시키는 현대 중국이 만들고 있는 '중화제국'의 이중의 통제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경제 개발 이후 더욱 빈번하고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민족 소요'는 소수민족 성원에게 가해지는 '제국'의 압박에 대한 그들의 저항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갈등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적인 차이를 무시한 채 경제개발주의만을 얘기하는 것이나 집단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일률적으로 '민족'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내에서만 다루는 것은 모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갈등 해소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참고문헌

1. 논문

김병호, 「중국 서부대개발의 정치·경제적 의의」, 『평화연구』 9, 2000, pp. 89-131.

김재기, 「중국의 민족문제와 '서부 대개발' : 정치경제적 배경과 딜레마」, 『한국동북아논총』 제18집, 2001, pp. 139-168.

안치영, 「중국의 민족 문제: '중화민족', 한족 그리고 '소수민족'」, 『동아시아 브리프』3(2), 2008, pp. 117-124.

윤휘탁, 「現代中國의 西部邊疆民族政策과 '國民國家' 完成하기 - '西部大開發'을 중심으로-」, 『中國史硏究』 37, 2005, pp. 245-290.

이중희, 「장쩌민 시대의 소수민족정책과 서부대개발」, 『아시아연구』 6, 2003, pp. 71-96.

임의영, 「'지방생산모형'의 도출을 위한 시론적 연구-타자화논리와 내부식민지론의 통합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4호, 2006, pp. 131-153.

吳良平·劉向權·尙陽, 「新疆人口結構的民族差異及其問題硏究」, 『西北人口』 第1期, 2015, pp. 105-110.

董雯·閻耀平, 「新疆喀納斯圖瓦部落文化的開發策略」, 『乾旱區資源與環境』 第2期, 2005, pp. 138-143.

陳實雄·努爾古麗·阿不都蘇力, 「喀納斯國家地質公園經營管理模式問題硏究」, 『商, business』 第21期, 2013, pp. 39-40.

王海燕・李曉東,「旅遊地生命週期理論與旅遊産品開發初探」,『資源與産業』第4期, 2006, pp. 89-92.
姚娟・田世政,「社區居民"整體搬遷"模式對生態旅遊景區管理的影響－以新疆喀納斯生態旅遊景區爲例」,『林業經濟』第6期, 2007, pp. 66-68.
孫九霞・史晗晗,「旅遊商業化的社區治理研究－以新疆喀納斯社區爲例」,『中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3期, 2012, pp. 47-52.
小嶋祐輔,「中國における差異の政治と民主主義－新講"民族主義"の經驗が示唆するの－」,『ICCS現代中國學ジャーナル』2, 2010, pp. 193-212.
_____,「中國における差異の政治と民主主義－新疆"民族問題"の經驗が示唆するもの－」,『ICCS Journal of Modern Chinese Studies』, 2(1), 2010, pp. 229-238.
グリザル　アブドロスリ,「新疆ウイグル自治區における農村觀光開發」,『國際文化學』22, 2010, pp. 85-101.
Yueyao Zhao, "Pivot or Periphery? Xinjiang's Resional Development", *Asian Ethnicity* 2, 2001, pp. 197-224.
Hongyi Harry Lai, "China's Western Development Its rationale, Implementation, and Prospects", *Modern China* 28, 2002, pp. 432-466.
Yufan Hao・Weihua Liu, "Xinjiang: increasing pain in the heart of China's borderland",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1, 2012, pp. 205-225.
Cao Huhua, "Urban-Rural Income Disparity and Urbanization: What Is the Role of Spacial Distribution of Ethnic Groups?", *Regional Studies* 44, 2010, pp. 965-982.
Shan Wei・Weng Guifen, "China's New Policy in Xinjiang and its Challenges", *East Asian Policy*, pp. 58-66.
Jessica Koch, "Economic Development and Ethnic Separatism in Western China: A New Model of Peripheral Nationalism", *Asia Research Centre Working Paper* 134, 2006, pp. 2-26.
Xiaogang Wu, Xi Song, "Ethnic Stratification amid China's Economic Transition: Evidence from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Social Science Research* 44, 2014, pp. 158-172.
Jingjing Yang, C. Ryan, "Sustaining culture ans seeking a Just Destination: governments, power and tension- a life-cycle approach to analysing tourism development in an ethnic-inhabited scenic area in Xinjiang, China",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22(8),

2014, pp. 1151–1174.

2. 단행본

왕후이 지음, 송인재 옮김,『아시아는 세계다』, 글항아리, 2011.
유장근,『현대중국의 중화제국 만들기』, 푸른역사, 2014.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劉少奇年譜』下卷, 中央文獻出版社, 1997.『鄧小平文選』第3卷, 人民出版社, 1994.
新疆維吾爾自治區統計局,『新疆統計年鑒』, 中國統計出版社, 2010・2011.
曾嶸,『旅遊對目的地社會文化影響的實證研究－以喀納斯風景區圖瓦人爲例』, 新疆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6.
關丙勝,『族群的演進博弈：中國圖瓦人研究』, 廈門大學博士學位論文, 2009.

[Abstract]

The Promotion of Sightseeing Industry in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and the Making of 'the Chinese Empire'

Ku, So-Young

This article has been triggered by the fact that in spite of the enormous economical support by the Chinese government in the 'Western region' which is relatively 'underdeveloped' and 'pre-modern' and where 'ethnic minorities' including Uyghurs, Kazakhs, etc comprise most of the population, the ethnic tensions in the various level are getting more serious and frequent. In order to elucidate on the mechanism leading to the tensions that I assume are inevitably inherent in the governmental policy of the regional development, I focus on depicting sightsee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practice. The 'Great Western Development' policy initiated for the purpose of the social stability and national unity through economic growth among regions has brought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regions in a limited sense, but has also caused the negative effects.

Under such circumstances, I argue that ethnic minorities in the region are currently under the pressure of the two-fold Empires: one is 'the Capitalist Empire' in which they are dominated by capital in the global environment of capitalism and the other is 'the Chinese Empire' in which they are forced to subordinate their 'ethnic identity' to the forged higher identity of 'Chinese(Zhonghuaminzu)', and eventually place XUAR under the rubric of the fabricated Empire in history.

Key words: Xinjiang, Ethnic Minorities, 'Great Western Development', Sightseeing, the Chinese Empire

구소영
소속: 경북대학교 사학과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전자우편: ppotto740903@hanmail.net

이 논문은 2015년 3월 30일 투고하여
2015년 4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5년 4월 15일 게재 확정함.